원광사 '자비도량 1번지' 도약 다짐

일일찻집 등 18년 동안 이어온 자비나눔 '화제'

18년 동안 끊임없는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는 부산 원광사가 앞으로 '자비나눔 도량'으로 더욱 도약할 것을 천명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말사 부산 원광사(주지 인오)는 11월 11일 오전 10시 제18회 일일찻집을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위치한 사직새마을 금고 2층에서 개최한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작은 일일찻집이지만 원광사 주지 스님과 신도들이 지역 내 독거 어르신,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난치병 어린이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행사다.

일일찻집은 오전 10시~오후 9시 운영되며, 오후 6시에는 현대음악 및 국악 등 작은 공연도 볼 수 있다. 또한 기금마련을 위한 천연염색 작품, 먹거리 판매와 인오 스님의 달마도도 만날 수 있다.

일일찻집은 원광사가 1년간 진행한 기금운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원광사는 1년 동안 경내 문수전에 불전함을 마련하고, 신도들의 동참을 유도 중이다.

자비나눔에 대한 계기를 묻자 인오 스님은 "처음 울산 대각사에 주지 소임을 맡았을 때부터 포교는 곧 자비 실천이며 대중과 함께 하는 삶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대각사에 갔을 때 신도가 1명이였다. 그 때부터 일일찻집을 열고 보시행을 실천하려 애썼다. 대웅전이 작았는데 문을 위로 올려 젖히니 대웅전이 곧 무대가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꾸준함이 곧 신뢰가 됐고 지금은 지역민들이 300명 넘게 찾는 행사가 됐다"고 자비 실천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부산 원광사가 일일찻집, 무료급식 및 장학금 후원으로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나눔도량으로 천명한 인오 스님이 이병욱 원광장학회 신임 회장과 활짝 웃고 있다.

11월 11일 18회 일일찻집 개최
연간 이웃돕기 '문수 불전함' 운영
난치병 아동·청소년 장학금에 쓰여
주지 인오 스님 "자비는 곧 포교"

원각사는 현재 부산 사직동에 위치해 있다. 규모는 작은 도량이지만 주지 스님의 나눔 원력은 원광장학회와 무료급식 봉사팀 자비사랑실천회 탄생의 원동력이 됐다. 원광 장학회는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금 수혜자는 매년 동래구청, 동래 경찰서, 사직동사무소 및 인근 학교에서 직접 추천을 받는다.

아울러 원광장학회를 위해 최근 이병욱 (주)미래랜드&미래더원 회장이 후원회장으로 나섰다. 이병욱 회장은 부산시장애인복지회 후원회장으로 현재 부산 16개구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최고 부동산 사업가로 활동 중이며 지난 2014년에는 '미래창조개발포럼'을 창립하고 회장을 맡았다. '미래창조개발포럼'은 부동산 개발 전문가 300여명이 모여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명 착한 부동산 사업을 펼치기 위해 '미래창조개발포럼'을 창립할 정도로 서민을 위한 사회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자 기업가다.

인오 스님은 앞으로 이병욱 원광장학회 회장과 함께 불교 사회 기여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포부다.

인오 스님은 "이병욱 회장과는 좋은 인연으로 힘을 많이 얻고 있다"며 "앞으로 병원과 협의해 난치병 환우를 위한 활동을 확장하고 사회 기여 활동을 위해 구체적으로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성미 기자

의성 고운사, 사찰음식 성지로 '우뚝'

2017 사찰음식문화제에 3,000여 명 몰려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호성)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주최한 '2017 고운사 사찰음식문화제'가 10월 22일 열렸다.〈사진〉

'절집의 차와 후식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연잎밥 시식 △전통차 시연 △사찰음식 전시 △산사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특히 연잎밥은 무료로 제공돼 이날 방문한 3,000여 사부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16교구 말사 중 13개 사찰이 참여한 사찰음식 나눔 체험행사에는 고운사의 청국장과 유부탕, 연미사의 사찰야채피자와 녹두전, 봉정사의 연근장아찌, 서악사의 우리쌀 단팥방, 석수암의 떡메인절미, 대원사의 삼색떡꼬치 등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주지 호성 스님은 "화엄사상에 비춰 보면 고운사 사찰음식 문화제를 '서로 배려하고 하나된다'는 의미에서 '삼청정'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면서 "특히 이번 문화제에는 사찰음식 외에도 의성군민들의 우수 농산물 전시홍보 판매부스도 10여 곳 설치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운사는 앞서 21일 제10회 천년솔향 청소년 문화제 '짝꿍과 함께 솔향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희망을 쓰고, 표현하며, 스토리텔링하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100여 명의 학생들이 경상북도교육감상, 국회의원상, 의성군수상, 동국대총장상 등 수상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부산불교교육대학, 한마음 대축제 개최

개교 36주년 기념 공로패 수여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10월 22일 부산 개금초에서 개교 36주년 기념 한마음대축제를 개최했다.〈사진〉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전국에서 최초 설립된 불교대학으로 전법 활동의 선구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를 기념하며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이날 조계종 대강백이자 부산불교교육대학 초대 대학원장을 역임한 각성 스님(부산 화엄사 회주)과 이상순 前 부산불교교육대학 관리실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각성 스님과 이상순 前 관리실장은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초창기에 강의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당시 운영하던 화엄회관을 강의실로 8년 동안 무료 보시했다.



학장 범혜 스님은 "부산불교교육대학이 한국불교에 길이 남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자. 그 사명의 주역은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격려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원순 스님의 '육조단경' 강의 열려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대표 김윤희)는 승·재가를 위한 강의 '제5기 육조단경'을 마련한다. 개강일은 11월 6일 오후 7시로, 장소는 부산 서면 묘광선원 4층이다. 강의 기간은 11월 6일~2월 26일, 4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 마다 개최한다. 교재는 원순 스님이 직접 쓴 〈돈황 법보단경〉이다. 수강료는 5만원이며 교재비 1만5,000원은 별도이다.

원순 스님은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여러 제방 선원에서 정진한 후 현재 송광사 인월암에서 주석하고 있다. 조계종 교재 편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기본 선원 교선사(敎禪師)로 어록을 강의하고 있다.

김윤희 열린불교아카데미 대표는 "〈육조단경〉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경전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051)244-0263

하성미 기자

장안사, 가을향기로 수놓는 천년고찰

11월 3일 개산 1344주년 다채로운 기념행사
국화 작품전시회·사진공모전 등 '풍성'

천년고찰 장안사가 개산1344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고 지역민을 초대한다.

장안사(주지 정오)는 개산1344주년을 맞아 11월 3일 오후 2시 불광교 개통식을 시작으로 국화작품전시회, 오채현 작가의 '불모의 돌조각' 전시 및 사진공모전을 등을 진행한다.

제1회 '천년고찰 장안사 가을향기를 품다' 국화작품전시회는 11월 3~12일 10일간 경내를 물들인다. 국화작품은 기장국화분과동호회가 국화분재 목석부작 100여점을 선보인다.

장안사는 "국화작품전시를 통해 기장군민들의 취미활동을 장려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제1회 천년고찰 '장안사' 사진공모전도 마련된다. 공모는 천년고찰 장안사를 중심으로 표현한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장안사를 소재로 한 모든 사진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11월 3일에 열리는 '천년고찰 장안사 국화 향기를 품다'도 주제에 포함된다. 공모 기간은 11월 13일~12월 25일이며 누구나 출품 가능하다. 출품료 무료. 응모방법은 디지털 JPG 파일로 1,200만 화소(3,000픽셀 이상 크기)여야 하며 이메일(photohwang@naver.com)로만 접수받는다. 응모메일에는 촬영일시, 장소, 촬영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해야 한다.

출품수는 1인당 6점 이내이며 2017년 1월 이후 촬영 사진으로 미발표작이여야 한다.

결과발표는 2018년 5월 초 개별통보하며 시상내역은 대상(1명) 상패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2명) 상패 및 상금 50만원, 동상(3명) 상패 및 상금 30만원, 입상(21명) 상패 및 상금 10만원이다. 시상은 2018년 5월 부처님오신날로 예정돼 있으며 장안사 경내에 시상식 날 전시된다.

행사 기간 오채현 작가의 '불모의 돌조각' 소품 전시회도 11월 3~30일 열린다. 오채현 작가는 바티칸 한국대사관에 한복 입은 성모상을 제작한 바 있다. 주로 거친 화강석으로 호랑이, 석불 등 해학적이고 익살스러운 한국 정서를 표현해내는 조각가이다.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은 "풍요로운 늦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아 기장군을 대표하는 천년고찰 장안사에도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었다"며 "개산을 맞아 시민을 위해 장안사 경내에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관심을 독려했다. (051)727-2393

하성미 기자

"노래로 이루는 화합, 그리고 통일"

총지종, 평창올림픽 성공 기원 제6회 통일음악예술제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인선)은 10월 24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제6회 통일음악예술제'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자리에는 통리원장 인선 정사와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통일음악예술제는 내년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한 진리의 법문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전하는 거룩한 자리"라며 "예술제 준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준비해주신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하성미 기자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 개관 : 2017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